

핵심주제

- 중국 후춘화 부총리, 동방경제포럼 중국 대표단 수석대표로
- 제 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 전자비자로 10만번째 외국인이 극동으로 입국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9년 8월 30일, TASS

북한 리용남 내각부총리, 2019동방경제포럼 북한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북한 정부 대표단이 2019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것임을 주러 북한 대사관이 밝혔다. 리용남 부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러 양국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조치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면담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s://tass.ru/ekonomika/6826090>

2019년 8월 30일, EastRussia

동방경제포럼으로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장관급 사절단 파견

해당 정보는 수프리야디 주러 인도네시아 대사가 코바코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밝혔다. 동방경제포럼에 브로드조네고로 국가발전계획부 장관이 참여할 계획이며 '투자 파이낸싱을 위한 단기 및 저금리 자금: 유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 세션에 발표자로도 참여한다.

<https://www.eastrussia.ru/news/na-vef-2019-indoneziya-vpervye-budet-predstavlena-na-ministerskom-urovne/>

2019년 8월 30일, TASS

'극동의 거리' 전시회 공식 사이트 가동

방문객들은 사이트에서 전시 참여한 지역들에 대한 정보와 극동연방관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 페이지로 전시회 일정과 모든 행사들을 정리했으며 공연, 마스터클래스, 체육행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 루스키섬 아약스 만 해안도로의 지도도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www.fareaststreet.ru입니다.

2019년 8월 29일, TASS

중국 후춘화 부총리, 2019동방경제포럼 중국 대표단 수석대표로

해당 정보는 장한웨이 주러 중국 대사가 코바코프 대통령 보좌관과의 면담에서 밝혔다. 중국 대표단에 알리바바, 아시아 포춘 포럼, 중국은행, COFCO, CAMC 엔지니어링, 국가전력망공사, China Railway International Group과 같은 중국 대기업 관계자들도 포함된다.

또한 중국 국제무역진흥위원회, 중국해외기업지원협회, 글로벌에너지통합 발전 및 협력 기관, 러시아 주재 중국 사업가 연합도 참여할 전망이다.

<https://tass.ru/ekonomika/6813544>

2019년 8월 29일, «Lenta.ru»

룩셈부르크 대표단, 2019동방경제포럼에 참여

모스크바에서 코바코프 대통령 보좌관과 크네벨레르 주러 룩셈부르크 대사와의 면담에서 경제통상협력 강화 및 과학기술, 인문 분야 교류 발전이 논의되었다. 룩셈부르크 대사는 2회 연속으로 슈나이더 부총리가 동방경제포럼 대표단을 이끈다고 밝혔다. 대사는 로스콩그레스 재단의 공식 행사에 룩셈부르크 참여는 경제 협력 강화와 건설적인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진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도 밝혔다.

<https://lenta.ru/pressrelease/2019/08/29/luxembourg/>

2019년 8월 29일, FederalPress

2019동방경제포럼 잡지 출간

로스콩그레스 재단은 제5회 동방경제포럼 잡지 특별호를 출간하였다. 잡지에는 극동의 주요 인프라 및 사회 프로젝트, 투자 및 관광 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잡지에 코즐로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과의 인터뷰도 실려있으며 동방경제포럼 일정 주요 행사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잡지는 러시아어, 영어로 출간되었으며 동방경제포럼 주요 행사장, 포럼 공식 차량 내부,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내 비치되어 있다.

<http://fedpress.ru/news/25/economy/2302242>

2019년 8월 27일, TASS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국제 상업 중재 법원 개원식 진행

국제 상업 중재 법원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의 개원식이 제5회 동방경제포럼에서 거행된다. 법원은 극동 사업가들간 중재 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중재 분야 세계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건전한 사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 상업 중재 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권위있는 중재 법원 중 하나이다. 매년 40~50개국 기업들의 250~300건에 달하는 국제 상업 소송건을 처리한다.

<https://tass.ru/ekonomika/6802700>

2019년 8월 27일, Interfax

제 2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2019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9월 6일로 계획된 행사에서 러시아 극동 11개 지역과 대한민국 지자체들간의 경제 협력이

논의된다. 포럼에서 극동 발전의 우선과제 및 양자협력 투자 프로젝트들이 소개된다.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다.

<https://www.interfax.ru/events/news/674120>

극동 뉴스

2019년 8월 29일, 'Komsomolskaya Pravda'

전자비자로 10만번째 외국인이 극동으로 입국

전자비자로 극동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나리타 공항에서 10만번째 입국자를 태운 비행기를 맞이하러 연해주 정부 관계자들과 '러시아' 항공사 관계자들, 공항 직원들, 극동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청 관계자들, 기자들이 모였다. 주인공은 일본 국적자 2명이었다.

전자비자 발급 제도는 극동연방관구에 2017년 8월 도입되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국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제도이다.

<https://www.kp.ru/daily/27022/4085206/>

2019년 8월 29일, TASS

극동 발전을 위해 40개 이상 연방법, 191개 시행령 채택

해당 정보는 코즐로프 장관이 동방경제포럼 공식 잡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장관에 의하면 주로 새로운 정책 기반 덕분에 극동 산업생산력 증가 속도가 러시아 평균의 3배가 되었다. 지난 수년간 러시아에 유치된 외국 직접 투자의 3분의 1이 극동에 해당한다.

<https://tass.ru/ekonomika/6811154>